

중국은 알까? ... 금보다 빛난 '우정의 메달'



쇼트트랙 한국 대표팀 황대현이 13일 오후 중국 베이징 캐피탈 실내 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500m 준결승 2조 경기를 마친 뒤 경기 도중 충돌한 캐나다 스티븐 뒤부아에게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쇼트트랙 황대현, 충돌한 캐나다 뒤부아에 진심 사과 훈훈 악수
올림픽 티켓 양보 받은 에린 잭슨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 금

해설위원으로 나선 이상화
친구 고다이아 부진에 눈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해설자로 찾은 이상화(33)는 친구 고다이아 나오(36·일본)의 아쉬운 레이스에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라이벌이자 절친인 고다이아가 저조한 기록으로 고개를 떨구자 이상화가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동계 올림픽에서 스타들의 우정과 스포츠맨십이 감동을 주고 있다.

일본 최고의 스타인 고다이아는 지난 13일 중국 베이징의 국립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 경기에서 부진한 성적으로 세월의 흐름을 실감하게 했다. 고다이아는 중반부터 힘이 떨어지며 38초 09의 저조한 성적 속에 17위로 대회를 마쳤다. 충격적인 결과에 이상화는 눈물에 젖었다.

이상화의 그늘에 가려있던 고다이아는 4년전 전 평창올림픽에서 생애 첫 금메달을 따내며 정상에 올랐다.

여자 500m에서 36초 94로 올림픽 기록을 갈아치웠다. 기록뿐만 아니라 페어플레이 정신을 보여주며 감동까지 더했다.

경기 직후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한 이상화에게 다가와 안아주며 위로하는 모습은 한일 양국 팬들의 찬사를 받으며 평창올림픽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혔다.

이상화는 고다이아의 아쉬운 레이스에 눈물을 흘리며 잠시 할 말을 잊었다.

감정을 추스른 이상화 KBS 해설위원은 "무거운 왕관의 무게를 이겨낼 줄 알았는데, 심리적인 압박이 정말 컸던 것 같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 간판 황대현(강원도청)도 스포츠맨십을 보여줬다.

황대현은 13일 중국 베이징 캐피탈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500m 준결승 2조에서 레이스 막판 추월하는 과정에서 페널티를 받아 실격됐다.

안쪽에서 4번째 자리에서 출발한 황대현은 4위로 레이스를 소화하다가 마지막 바퀴에서 추월을 시도했다.

이때 앞서가던 스티븐 뒤부아(캐나다)를 추월하려다 부딪히면서 뒤로 밀려났다.

황대현은 가장 뒤늦게 결승선을 끊었고, 심판은 비디오 판독을 한 뒤 황대현에게 페널티를 주고 뒤부아에게 결승전 진출 어드밴스를 부여했다.

경기 뒤 황대현은 먼저 "캐나다 선수(뒤부아)에게 미안해서 사과했다"고 말했다.

동계올림픽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한 에린 잭슨(30·미국)은 팀 동료 브리트니 보(34·미국)의 양보가 없었다면 올림픽 출전도 못할 처지였다.

잭슨은 13일 중국 베이징의 국립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 경기에서 37초 04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잭슨은 흑인 여성 최초로 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에서 메달을 따낸 선수가 됐다.

그가 영광을 누리는 데는 보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보는 올해 1월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 미국 대표 선발전에서 우승했으나, 3위로 탈락한 잭슨에게 '올림픽 티켓'을 양보했다.

34세인 보가 잭슨의 입상 가능성이 더 크다면 흔쾌히 자신의 올림픽 티켓을 잭슨에게 내준 것이다

그는 "잭슨은 누구보다 500m 올림픽 경기에 출전할 자격이 있는 선수"라며 "나보다 잭슨이 더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고 양보의 이유를



흑인 여성 최초로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미국의 에린 잭슨. /연합뉴스

설명했다.

양보는 기적을 불렀다. 다른 나라에서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 불참 선수가 나오면서 미국에 출전권 1장이 더 생겼고, 보도 베이징올림픽 500m에 출전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쇼트트랙 여자대표팀 3000m 계주 은메달

최민정·이유빈·김아랑·서희민

쇼트트랙 여자대표팀이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차지했다.

최민정(성남시청), 이유빈(연세대), 김아랑(고양시청), 서희민(고려대)이 나선 여자대표팀은 13일 중국 베이징 캐피탈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m 결승에서 4분3초63의 기록으로 네덜란드에 이어 2위를 차지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은 2014 소치 동계올림픽 금메달,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에 이어 3개 대회 연속 메달 획득에 성공했다. 다만 3개 대회 연속 금메달을 놓친 게 아쉬웠다.

네덜란드는 4분3초40의 올림픽 기록으로 우승했다.

네덜란드, 중국, 캐나다와 경쟁한 한국은 레이스 중반까지 3위와 4위 자리를 오르내렸다.

네덜란드가 선두 자리를 굳건하게 지킨 가운데,

한국은 중국, 캐나다와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대표팀은 결승선 3바퀴를 남기고 승부수를 띄웠다.

김아랑이 인코스를 노려 중국을 제치고 3위 자리에 올라섰고, 마지막 주자로 나선 최민정이 결승선 2바퀴를 남기고 특유의 아웃 코스 질주로 캐나다까지 제쳤다.

최민정은 마지막 바퀴에서 이를 악물고 네덜란드의 에이스 쉬자너 스웰팅을 따라잡으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결승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대표팀 선수들에게 축전을 보내 노고를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김아랑·최민정·이유빈·서희민 선수에게 보낸 축전에서 "함께하는 힘의 가치를 감동으로 나눠줘 고맙다"며 "땀과 노력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남은 경기도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계주 3000m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한국 쇼트트랙 여자계주 대표팀이 13일 오후 중국 베이징 캐피탈 실내 경기장에서 열린 간지 시상식에서 네덜란드, 중국 선수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은지가 베이징동계올림픽 여자 스켈레톤 1차 시기에서 최재진에게 태극마크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나는 자랑스러운 국가대표다”

스켈레톤 김은지, 나이 30세에 올림픽 첫 출전 23위

우여곡절 끝에 올림픽 무대에 오른 여자 스켈레톤 김은지(강원BS경기연맹)의 장갑에 적은 다짐이 잔잔한 감동을 준다.

김은지는 원래 육상 멀리뛰기 선수였으나, 20대 중반 은퇴를 고민하다가 2017년 스켈레톤으로 전향했다.

하지만 곧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고, 2018년 평창 대회에는 국가대표로 나서지 못했다. 대신 평창에서는 트랙을 미리 타 보며 상태를 점검하는 '전주자'로 활동했다.

우여곡절 끝에, 나이 서른에 처음으로 오른 올림

픽 무대에서 김은지는 당당하게 슬라이딩했다.

김은지는 12일 중국 베이징 연칭의 국립 슬라이딩 센터에서 끝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여자 스켈레톤 경기에서 1~3차 시기 합계 3분09초79를 기록했다.

3차 시기까지 20위 안에 들어가 4차 시기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김은지의 올림픽 주행은 3차례에서 그쳤다.

3차 시기까지 순위 23위가 그대로 김은지의 이번 대회 최종 성적이었다. 순위표에서 김은지 아래에는 두 명만 있었다.

하지만 김은지는 활짝 웃었다. 방송사 중계 카메라를 향해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가대표다. 대한민국 파이팅!”이라고 장갑에 적은 문구를 내보였다.

첫날 경기를 마치고는 유니폼 원팔에 그려진 태극마크를 가리키며 국가대표의 자부심을 드러내 보였다.

김은지는 한국 여자 스켈레톤의 대를 본다.

올림픽에 앞서 열린 2021-2022시즌 북아메리카 컵 4-6차 대회에서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착박한 한국 썰매 환경 속에서 최상의 성과를 냈다.

썰매에서는 몸 관리를 잘해 30대 중후반까지 '롱런'하는 선수가 적지 않다.

여자 스켈레톤 6위를 한 미국의 케이티 올랜더는 서른여덟 살이다.

김은지의 올림픽 도전은 이제 시작이다.

/연합뉴스